

# “광주·전남 행정통합시 지역편중·사업차질 우려된다”

## 전남도, 장성군민 대상 두 번째 공청회 행정통합 논의 도민 참여 중심 이어가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 의견을 듣는 공청회에서 통합 시 지역 편중 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남도는 20일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대한 도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장성군에서 두 번째 도민공청회를 개최, 행정통합 논의를 지역 도민 참여 중심으로 이어가고 있다.

지난 19일 영암군 도민공청회에 이어 진

행된 이번 도민공청회에도 김영록 전남도 지사가 참석해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추진 배경과 필요성, 주요 특례 사항, 통합으로 인해 달라지는 삶 등을 도민에게 상세히 설명했다. 이어 현장에서 진행된 질의·응답을 통해 행정통합에 대한 도민의 다양한 의견과 우려 사항을 직접 청취하며 소통 시간을 가졌다.

또한 교육통합에 대한 도민의 관심이 높은 점을 반영해 전남도교육청과 공동으로 공청회를 개최하고 김대중 전남도교육감

이 교육통합 추진 방향과 기대 효과를 설명한 뒤 학생·부모·교원 등 참석자들의 질의에 직접 답변했다.

서산초등학교 심명자 교장은 “인구가 갈수록 줄어드는 장성에서는 학생 수가 많은 학교로 학생의 쓸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규모가 작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직원들은 정원이 줄어들까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에서 그동안 추진해온 사업이 차질을 빚거나 다른 지역으로의 시설 이전을 우려하는 주민 의견도 있었다.

삼계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인 이모 씨는 “주민들에게 소중한 자산인 전남 1호 데이터센터가 현재 남면에 지어지고 있다”며 “하지만 통합하게 되면 이를 다른 지역에 빼앗길거나 사업이 중단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김영록 지사는 “영암에 이어 장성에서

공청회를 열어 도민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20일 장성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도민공청회에서 김대중 전남교육감, 김현중 장성군수 등 도민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전남도

직접 듣고 있다”며 “두 차례 공청회를 통해 제기된 의견을 종합해 군 단위에서도 실질적으로 체감할 균형발전형 행정통합 전문단지 지정 등 미래 성장동력을 차분히 방안을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장성은 심뇌혈관 질환 중심의 의

료·바이오 산업, AI 데이터센터 기반 첨단 산업, 아열대 스마트 농업지구 조성과 수출

준비한 지역”이라며 “행정통합을 통해 이

려한 전략 산업이 더욱 속도를 내고 장성이

전남 북부권의 핵심 거점 도시로 도약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21일 목포와 신안에서 도민공정회를 개최하는 등 앞으로 남은 20개 시군을 순차적으로 방문하며 도민공청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행정통합에 관심 있는 도민은 전남도와 시군 누리집에 게시된 정보나 QR코드를 통해 사전 신청하거나 당일 현장 접수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 광주시 공무원 80% “시·도 행정통합 부정적”

### 시 공무원노조 인식조사 결과 근무환경 영향·고용 안정 우려 도 공무원 설문결과 오늘 발표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추진 중인 가운데 광주시 공무원 대부분은 근무지 이동 등 근무 환경 불안정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광주시 공무원노동조합이 실시한 행정통합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58.7%가 통합 추진에 매우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21.9%는 다소 부정적이라고 답해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80%에 달했다.

긍정적이라는 답은 9.4% (긍정적 5.7%, 매우 긍정적 3.7%)에 불과했으며

보통은 10%였다.

노조는 지난 16~19일 전체 2585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이 중 958명이 참여했다.

77.8%는 통합이 근무 환경에 미칠 영향이 매우 끊기고 싶어했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으로는 근무지 이동

을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인사·보수 체계, 조직 개편, 고용 안정성, 직무 변경을 우려했다.

고용 안정성에 대해서는 73%가 ‘보장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행정통합 특별법에 반드시 반영돼야 하는 사항으로도 근무지 유지 및 이동제한을 가장 많이 꼽아, 근무 불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는 공정한 인사를 가장 많이 들었고, 고용 안정, 지역 균형발전, 근로조건 개선, 조직

효율성 등을 꼽았다. 87%가 직원과 노조 의견이 주진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으며, 95%가 노사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별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안다’가 45.2%로 가장 많았고, ‘들어본 적 있다’ 20.6%, ‘매우 잘 안다’ 13.6%, ‘잘 모른다’ 13.5%, ‘전혀 모른다’ 7.2% 등으로 대체적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노조는 “이번 조사를 통해 행정통합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은 ‘우리’ 단계를 넘어 ‘반대’로 굳어지고 있음이 한편 전남도 공무원노조는 지난 16~19일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통합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21일 발표할 예정이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 호남권통일플러스센터 도민 참여형 사업 공모

호남권통일플러스센터는 올해 도민의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공모사업을 추진한다.

공모사업은 평화통일 기반조성 사업 (9000만원)과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만드는 통일이야기 사업 (1000만원) 등 2개다.

평화통일 기반조성 사업은 도민을 대상으로 한 평화통일 교육, 문화행사, 인식조사와 정책 제안 연구 등을 추진해 지역사회 전반의 평화통일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오는 27일까지 접수한다.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만드는 통일이야기는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공모사업으로, 탈북 청년과 북한이탈주민이 직접 참여해 지역사회 일상, 정책 경험 등을 주제로 한 문화콘텐츠 창작 활동을 지원한다. 오는 30일까지 모집한다.

두 사업 모두 전남도와 광주시에 있는 비영리단체나 법인이 참여할 수 있다. 사업의 필요성·효과성·수행능력 등을 종합 평가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사업은 올해 상반기부터 추진되며, 공모 접수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 누리집 도정소식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진선 호남권통일플러스센터장은 “이번 공모사업은 북한이탈주민과 도민이 함께 소통하면서 통일을 일상 속 이야 기로 풀어내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지역사회 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해 많은 단체와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박정기자 holbul@gwangnam.co.kr

호남권통일플러스센터는 올해 도민의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공모사업을

추진한다.

공모사업은 평화통일 기반조성 사업

(9000만원)

과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만드는

통일이야기 사업 (1000만원) 등 2개다.

평화통일 기반조성 사업은 도민을 대상으로 한 평화통일 교육, 문화행사, 인식조사와 정책 제안 연구 등을 추진해 지역사회 전반의 평화통일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오는 27일까지 접수한다.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만드는 통일이야기는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공모사업으로, 탈북 청년과 북한이탈주민이 직접 참여해 지역사회 일상, 정책 경험 등을 주제로 한 문화콘텐츠 창작 활동을 지원한다. 오는 30일까지 모집한다.

두 사업 모두 전남도와 광주시에 있는

비영리단체나 법인이 참여할 수 있다.

사업의 필요성·효과성·수행능력 등을

종합 평가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사업은 올해 상반기부터 추진되며, 공모 접수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 누리집 도정소식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진선 호남권통일플러스센터장은 “이번 공모사업은 북한이탈주민과 도민이 함께 소통하면서 통일을 일상 속 이야 기로 풀어내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지역사회 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해 많은 단체와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박정기자 holbul@gwangnam.co.kr

호남권통일플러스센터는 올해 도민의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공모사업을

추진한다.

공모사업은 평화통일 기반조성 사업

(9000만원)

과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만드는

통일이야기 사업 (1000만원) 등 2개다.

평화통일 기반조성 사업은 도민을 대상으로 한 평화통일 교육, 문화행사, 인식조사와 정책 제안 연구 등을 추진해 지역사회 전반의 평화통일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오는 27일까지 접수한다.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만드는 통일이야기는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공모사업으로, 탈북 청년과 북한이탈주민이 직접 참여해 지역사회 일상, 정책 경험 등을 주제로 한 문화콘텐츠 창작 활동을 지원한다. 오는 30일까지 모집한다.

두 사업 모두 전남도와 광주시에 있는

비영리단체나 법인이 참여할 수 있다.

사업의 필요성·효과성·수행능력 등을

종합 평가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사업은 올해 상반기부터 추진되며, 공모 접수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 누리집 도정소식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진선 호남권통일플러스센터장은 “이번 공모사업은 북한이탈주민과 도민이 함께 소통하면서 통일을 일상 속 이야 기로 풀어내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지역사회 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해 많은 단체와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박정기자 holbul@gwangnam.co.kr

## 문인 북구청장 3선 도전 가능성에 선거판 요동

### 기초단체장 자격 심사 신청…“통합상황 고려해 거취 결정”



라 기초단체장 예비후보 자격 심사에 접수했다”며 “행정통합의 등 정치 환경이 수시로 변화하는 과정

에서 혹시 모를 변수에 대비하는 차원으로 기초단체장 자격심사를 신청했을 뿐이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북구청장 출마 후보군으로 꼽히는 정다은 광주시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광주시장 출마에서 북구청장으로 노선을 변경한 것은 개인의 공언을 뒤집는 것”이라며 “말과 행동은 천금보다 무거워야 하며, 약속을 지켰던 문인 청장으로 기억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이상하 기자 goback@

기초단체장 자격 심사 신청…“통합상황 고려해 거취 결정”

문인 북구청장이 기초단체장 예비후보로 자격 심사를 신청, 3선 도전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북구 선거판이 요동친다.

20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문인 북구청장은 이날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낸 광역단체장 예비후보 자격 심사 신청을 철회하고, 광주시당에 기초단체장 예비후보 자격 심사를 신청했다.

문 청장의 기초단체장 예비후보 자격 심사를 놓고 지역 정치권에서는 복잡한 정치적 쟁점을 대비하기 위함이라는 의 견이 지배적이다.

실제 문 청장 측은 광주·전남 행정통합 상황을 지켜보며 거취를 숙고하겠다는 입장이다.

문 청장 측 관계자는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광주시장 선거가 없어진 것이

개정안은 5·18 민주화운동에 관한 사실을 기록·전파하는 데 현저히 기여한 사람을 ‘5·18 민주화운동 특별공로자’로 신설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민주우공자로 예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

다. 이성호 기자 solee235@gwangnam.co.kr

개정안은 5·18 민주화운동에 관한 사실을 기록·전파하는 데 현저히 기여한 사람을 ‘5·18 민주화운동 특별공로자’로 신설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민주우공자로 예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

다. 이성호 기자 solee235@gwangnam.co.kr

개정안은 5·18 민주화운동에 관한 사실을 기록·전파하는 데 현저히 기여한 사람을 ‘5·18 민주화운동 특별공로자’로 신설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민주우공자로 예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

다. 이성호 기자 solee235@gwangnam.co.kr

개정안은 5·18 민주화운동에 관한 사실을 기록·전파하는 데 현저히 기여한 사람을 ‘5·18 민주화운동 특별공로자’로 신설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민주우공자로 예우할 수